 <b>문화재청</b>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b>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으로 세계일류 문화국가 실현</b>			
	<b>보도시점</b>	<b>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b>		
	<b>담당부서</b>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b>전화번호</b>	02-3701-7631 02-3701-7649
	<b>담당자 (e-mail)</b>	박대남(chpdn@korea.kr) 김경미(kimkm27@korea.kr)	<b>F A X</b>	02-3701-7640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www.korea.kr)정책정보」에 동시 게재				

##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 전시실 새롭게 개편

- 재개관일 : 8.1, 특별전 : 8.1.~ 9.30.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정종수)은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전시실의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등 최적의 유물 보존과 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재개관에 앞서 전시실 전면 개편 등에 대한 언론 설명회를 30일 오전 11시에 개최한다. 일반 국민에게는 오는 8월 1일부터 공개한다.

전시실은 기존의 12개 실을 주제별로 이동, 통·폐합해 10개 실로 개편했다. 전시 유물은 9백여 점에서 2천여 점으로 확충했다. 고품격의 왕실유물을 보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게 안내시설과 휴게시설을 확충하는 등 관람환경도 새롭게 개선했다.

또 창덕궁 선원전 내부 감실과 규장각 왕실도서관 등을 그대로 재현 전시했다. 영상세대를 위한 다양한 전시 영상물을 대폭 늘려,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 왕조의 역사와 제도, 그리고 왕실의 예술과 문화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게 준비했다.

오는 8월 1일부터 재개관을 기념해 ‘왕의 상징, 어보(御寶)’ 특별전을 개최한다. 조선 시대 국가 의례용으로 제작했던 어보를 집중 조명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 특별전은 크게 조선의 어보, 어보와 국가의례, 어보의 제작과 봉과(封裏·운반을 위해 어보를 싸는 과정), 어보의 봉안으로 구성된다. 전시되는 유물은 태조의 가상시호 금보 등 63과(顆)의 어보와 어보를 안전하게 이동·보관하기 위해 함께 마련했던 보관물품, 어보의 인문이 찍혀있는 국보 제292호 ‘상원사중창권선문(上院寺重創勸善文)’ 등 총 229점이다. 아울러 오는 8월 23일과 9월 20일에는 특별 강연회도 개최하여 일반 관람객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또 1층 왕실의 의례실에서는 '갑옷과 투구'(온양민속박물관 소장품), 정조대왕 초상지출토 유물 '백자호' 등 명기(冥器·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든 부장 그릇) 일괄 부장품을 10월 말까지 공개한다. 2층 조선의 국왕실과 왕실의 생활실에서는 '영친왕 홍릉포', '영친왕비 대홍원삼'을 5일간 공개하고, 복식 전공자와 관계 전문가에게 진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고궁박물관의 재개관과 특별 전시를 통해 조선 왕조의 품격있는 왕실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모든 국민이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 붙임 1. 재개관 개요.  
2. 상설전시 개편 주요 내용.  
3. '왕의 상징 어보(御寶)' 특별전 주요 내용.  
4. 사진자료. 끝.

<붙임 1>

# 재개관 개요

□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국립고궁박물관**

- **관람안내** : 관람시간 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은 9:00~19:00)  
 ※ 입장은 마감 1시간 전까지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개관)
- **전시해설안내** : 품격 있는 조선왕실 문화 유물의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회 차	시 간	언어별 안내
1	10:00 ~ 11:00	중국어
2	11:00 ~ 12:00	한국어
3	13:00 ~ 14:00	일본어
4	14:00 ~ 15:00	한국어
5	15:00 ~ 16:00	영 어
6	16:00 ~ 17:00	한국어

- 매일 6회 실시(한국어 3회, 중국어/일본어/영어 각 1회)/ • 회 1시간 내의  
 ※ 원하는 회차의 정각에 2층 데스크로 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외국어 안내는 요일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시관 층별 안내**

## 2F

국왕을 중심으로 한 조선왕조의 역사와 기록물. 그리고 궁궐과 그 안에서 살았던 왕실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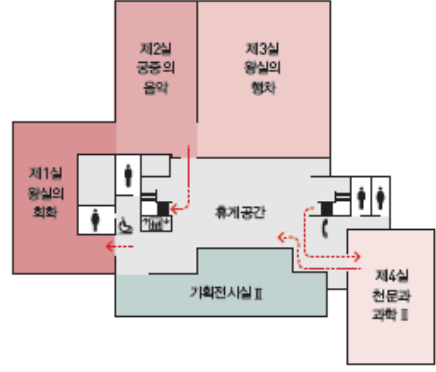
## 1F

'예'를 구현하는 국가의례로서 오례五禮 관련 유물과 대한제국기의 역사, 그리고 둘에 새긴 별자리지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 B1F

화려한 궁중의 병풍 그림과 궁중의례에 사용되었던 악기와 행차용 가마, 조선의 뛰어난 과학수준을 보여주는 각종 시계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lt;붙임 2&gt;

## 상설전시 개편 주요 내용

### 1. 상설전시 구성

개편된 전시실을 살펴보면, 2층에 <조선의 국왕>, <조선의 궁궐>, <왕실의 생활>을 두어 국왕을 중심으로 국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정통성을 나타내는 상징물과 다양한 조선왕조의 역사와 기록물, 그리고 궁궐의 역사와 특징, 그 안에서 살았던 왕실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유물을 감상할 수 있다.

1층에는 <왕실의 의례>, <대한제국과 황실>, <천문과 과학(I)>을 두어, 조선 왕조의 '예(禮)'를 구현하는 국가의례로서 가례·길례·빈례·군례·흉례 등 오례(五禮)와 관련된 유물과 대한제국기의 역사와 황실 이야기, 둘에 새긴 별자리지도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비롯한 천문(天文) 관련 유물을 집중 관람할 수 있다.

지하층에는 <왕실의 회화>, <궁중의 음악>, <왕실의 행차>, <천문과 과학(II)>을 배치하여, 화려한 왕실의 그림과 궁중의례에 사용되었던 악기와 행차용 가마, 조선의 뛰어난 과학수준을 보여주는 도량형기와 의학 관련 유물, 자동 물시계인 자격루와 각종 해시계 등을 만나볼 수 있다.

### 2. 새롭게 주목할 만한 개편 내용

조선의 국왕실에서는 국왕의 대표적인 상징물과 특정임금을 집중 조명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였으며, 그 첫번째 대상으로 정조대왕을 조명하였다. 왕의 초상화인 어진을 모셨던 창덕궁 선원전 내부 감실을 재현하고, 이와 함께 초상화와 진전眞展 관련 유물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학문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조선의 제왕 교육 및 어제·어필, 그리고 조선왕실의 품격을 보여주는 다양한 문방구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또, 조선시대 궁궐의 역사와 각 궁궐을 집중하여 살펴 볼 수 있도록 조선의 궁궐실을 꾸몄다. 특히, KIST(한국과학기술원)의 기술지원으로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증강현실로 보는 '동궐도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 왕실의 생활실에서는 왕실의 품위있는 의식주생활을 엿볼 수 있으며, 왕비를 비롯한 왕실 내·외 명부체계도 살펴 볼 수 있다.

왕실의 의례실에서는 태항아리와 태실, 가례에 해당되는 혼례·존호 의식 관련 유물, 흉례에 해당되는 국장과 왕릉 관련 유물을 선보인다. 특히, 군례와 군사 관련 유물인 조선시대의 활과 화살, 비격진천뢰와 불랑기 등의 화기와 같은 각종 무기류들을 새롭게 소개하여 조선왕조의 의례를 폭넓게 조명하는 기회를 삼고자 하였다.

또, 천문과 과학 I, II실을 새롭게 신설하여 별자리지도와 각종 해시계, 물시계 자격루를 한자리에 전시하여 조선의 과학사를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였다.

### 3. 고품격 왕실문화 체험을 위한 재현전시 확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왕의 초상화를 모시는 전각인 창덕궁 선원전의 감실 모습과 규장각 왕실도서관을 그대로 재현하여 그 속살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구화된 대한제국 황실에서 실제로 사용하던 유럽식 의자와 탁자, 오얏꽃무늬가 수놓아진 황금병풍, 상들리에 등을 전시하여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 보고자 하였다.

### 4. 왕실문화 감상을 위한 관람환경 개선

보다 편안하게 왕실문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협약 기업인 (주)라이엇게임즈 코리아의 후원으로 지하층 휴게·교육공간을 조성하고, 가구 디자이너 하지훈(계원디자인예술대학 가구디자인학과) 교수가 한국 전통을 가미하여 새로 디자인한 의자를 배치하였다.

&lt;붙임 3&gt;

## '왕의 상징 어보(御寶)' 특별전 주요 내용

### 1. 특별전 개요

- 전시명 : 왕의 상징, 어보(御寶)
- 전시기간 : 2012. 8. 1(수) ~ 9. 30.(일)
- 출품유물 : 태조어보 등 조선왕조 어보 63점, 태조어진 등 관련유물 166점
- 관람시간 : <화~금> 오전 9시~오후 6시 /<토, 일, 공휴일> 오전 9시~오후 7시  
\*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매주 월요일은 휴관
- 관람료 : 무료

### 2. 특별 강연

#### ○ 1차

- 일시/장소 : 2012. 8. 23.(목) 14:00~16:00/ 국립고궁박물관 1층 강당
- 내용 : 조선 어보의 특징과 의의/김경미(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사)  
조선 어보와 의례/정재훈(경북대학교 교수)

#### ○ 2차

- 일시/장소 : 2012. 9.20(목) 14:00~17:00/ 국립고궁박물관 1층 강당
- 내용 : 조선 국왕의 호칭/정종수(국립고궁박물관장)  
의례를 통해 본 어보의 제작과 특징/이귀영(전시홍보과장)  
조선 어보의 인문과 서체/손환일(서화문화연구소장)

### 3. 조선의 어보(御寶)란 무엇인가?

조선의 어보는 국가에서 제작한 인장(印章)으로 국가의례(國家儀禮)에서 왕을 비롯하여 왕세자, 왕세자빈, 왕후, 빈(嬪) 등 개인에게 수여되는 어보이다. 이러한 어보는 주인공 사후 종묘 신실에 영구히 모셔져 왕실과 국가를 지키는 상징이 되었다.

의례용 어보는 호칭을 새기는 인면과 육면체의 몸체(인판·印版), 손잡이 부분(紐·紐)으로 이루어진다. 인면에 책봉명(冊封名), 존호(尊號)와 같은 의례에 따른 존귀한 호칭을 전서(篆書) 가운데 하나인 구첩전(九疊篆)이라는 한문 서체로 새겼는데, 국왕, 왕후는 ~보(寶), 왕세자 이하는 ~인(印)으로 새겼다. 왕과 왕후 어보는 금속이나 옥돌로 만들었다.

#### 4. 특별전 전시구성

전시는 크게 조선의 어보, 어보와 국가의례, 어보의 제작과 붕과, 어보의 봉안으로 구성된다.

[조선의 어보]에서는 조선왕조의 의례용 어보와 실무용 국새(國璽)를 제작한 현황과 다양한 사용 예를 살펴보고 있다.

[어보와 국가의례]에서는 국가의례에서 어보가 쓰인 예를 살펴보고, 현존하지 않는 태종, 세조, 덕종, 현종의 어보를 제외한 조선 왕의 어보와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의 어보를 각각의 의례와 연계하여 선보이고 있다.

조선의 어보는 국가의례가 행해질 때마다 없어서는 안 될 의물이다. 국가의례(國家儀禮) 가운데 가례(嘉禮)에 속하는 책봉(冊封), 존호(尊號), 존숭(尊崇) 의례와 흉례(凶禮)에 해당되는 국장(國葬), 부묘(祔廟) 의례 때 해당 주인공에게 받쳐졌다. 이 가운데 이번 전시의 핵심이 되는 의례용 어보는 책봉(冊封), 상존호(上尊號), 국장(國葬), 부묘(祔廟) 의례 때 어책(御冊, 왕·왕비에게 올리는 훈유의 글), 교명(敎命, 세자·왕비 등 책봉 임명장) 등과 같이 해당 주인공에게 받쳐졌다.

왕세자책봉과 왕비책봉은 왕위계승과 직결된 사안이었고 상존호(上尊號)와 국장 진행과 함께 시호(諡號), 묘호(廟號)를 바치는 일은 국왕에 대한 역사적 평가작업의 일환이었으므로, 의례용 어보에는 조선의 정치사가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어보의 제작과 붕과]에서는 어보가 제작되는 절차와 붕과(운반을 위해 어보를 싸는 과정)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꾸몄다. 어보의 제작은 의례를 준비하는 국가 기구인 도감(都監)에서 맡았다. 수여자의 지위에 따라 재료 및 형태를 조금씩 달리하여 만들었고 가장 중요한 인면(印面)에는 책봉명(冊封名), 존호, 시호 등을 전서(篆書)의 일종인 구첩전(九疊篆, 가로 9획인 전서)으로 정연하게 새겼다.

어보를 제작할 때는 보자기, 결영자(結纓子· 묶는 끈), 보통(寶筒· 금속 속상자), 보록(寶籛· 가죽 중간상자), 호갑(護匣· 가죽 겉상자), 열쇠, 자물쇠, 시가(匙家· 열쇠 주머니)와 같은 보관 물품을 함께 제작하였다.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되는 호갑(護匣)은 어보와 인주(印朱)를 함께 담는 가죽으로 만든 겉 상자로, 왕실공예품의 위용을 잘 보여준다. 어보 뿐 아니라 이러한 보관물품조차도 관리부서인 종묘서(宗廟署)에서 철저히 관리하였고 그 내용은 '종묘등록(宗廟騰錄)'에 기록되어 후세가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어보의 봉안]은 국왕의 사망과 함께 장례를 치루고 종묘에 신위와 어보가 부묘(祔廟)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어보는 주인공 살아생전에는 궁궐에 보관하였다가 돌아가시면 국장 전까지 왕의 시신을 모시는 빈전(殯殿)에 모셨고, 삼년상이 끝나고 난 후 신위를 종묘로 모시는 부묘 때 어보도 함께 모셔 갔다. 모실 때는 신위, 어책(御冊)과 함께 가마에 싣고 행렬을 이루어 나아갔다.

존호 등 각종 호칭을 정하여 국왕에 바치는 행위는 조선의 통치이념인 유교에 입각한 국왕에 대한 총체적 평가였고, 이를 새긴 어보의 종묘 봉안은 최종적인 정통성의 승인이었다. 이렇게 종묘에 봉안된 조선의 어보는 주인공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이었고, 신위와 함께 영원히 나라와 왕실을 지키는 상징이 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동영상을 통해 어보의 제작, 봉과(封裹·보자기에 싸고 상자에 담는 일) 과정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고,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어보 봉안처인 종묘의 신실도 재현하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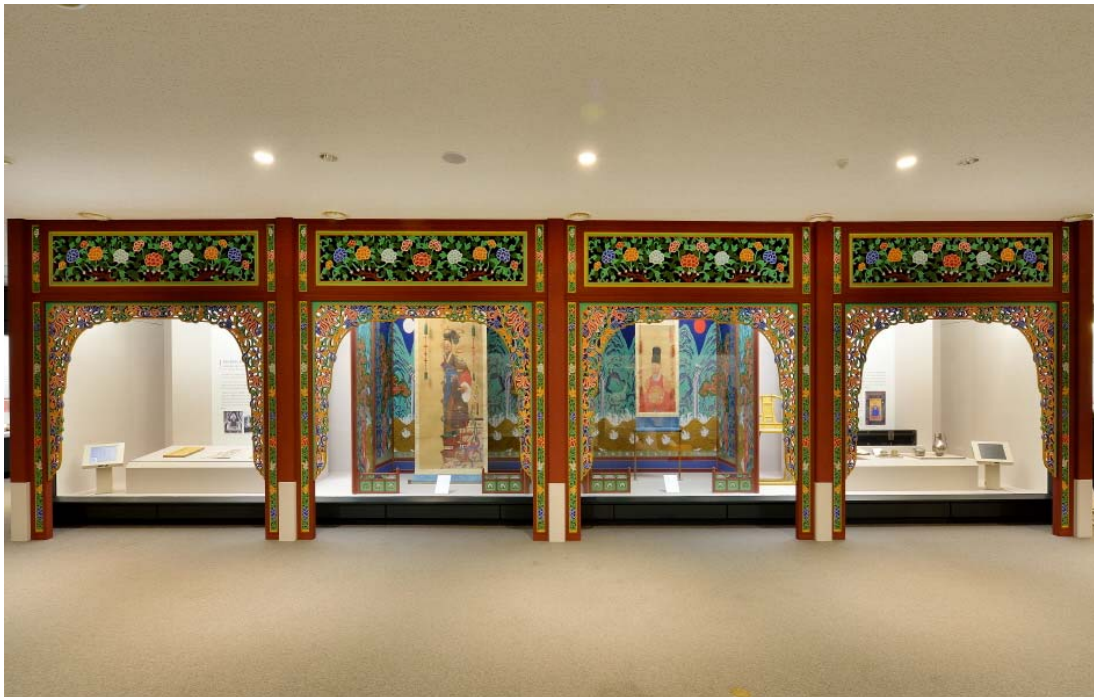
<붙임 4>

# 사 진 자 료

[상설전시]



<조선의 국왕> 전시실 전경



<조선의 국왕> 전시실 중 '선원전' 재현장  
임금의 초상화를 모시는 창덕궁 선원전 감실을 재현하고, 관련유물을 전시하였다.



<조선의 국왕> 전시실 전경



<조선의 국왕> 전시실 중 '왕실도서관' 재현장



<조선의 국왕> 전시실 중 왕실 문방구 전시장



<궁궐의 건축> 전시실 중 '증강현실을 이용한 동궐도 보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새로 개발한 기술로,  
아이패드로 증강현실을 이용한 동궐도의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최초일반공개] <왕실의 생활> 용무늬항아리(백자 청화운룡문호,白磁靑畵雲龍文壺), 조선, 높이 53cm

금호석유화학(주, 대표이사 회장 박찬구)이 2011년 11월 기증한 것으로, 이번에 일반에 처음 공개된다. 이러한 대형 용무늬 항아리는 용준(龍樽)으로도 불리며, 조선시대 궁중의 여러 의식 행사 때 어좌의 좌우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것이다. 이러한 항아리는 왕실의 권위와 위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특히 다섯 개의 발톱(五爪)을 힘차게 펼쳐 여의주를 쫓는 박진감 넘치는 용의 모습을 생생히 표현한 수작이다.



[최초일반공개]<궁궐의 건축> 전시실 전경, (앞)창경궁에서 전래된 석수상, 조선 석수는 궁궐 안 물이 흐르는 어구御溝 위에 놓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천록天祿은 해치와 마찬가지로 잡귀를 쫓는 역할을 했는데 물을 타고 들어오는 나쁜 잡귀를 내쫓는 벽사의 의미로 설치하였다.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된다.



<왕실의 의례> 전시실 전경



[최초일반공개]<왕실의 의례> 정조 초창지에서 출토된 백자 명기류, 조선(18세기) 정조대왕의 초창지(1800년 승하)에서 출토된 백자명기류는 그 종류가 다양하며, 특히 왕실제기인 작(爵)과 궁중제례악에서만 사용하던 악기인 편경(編磬)과 편종(編鐘)이 각각 명기로 제작되어 출토되었다는 점은 이 무덤이 왕릉으로서의 격이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제국과 황실> 전시실 중 '근대기의 황실 궁궐 내부' 재현장 서구화된 대한제국 황실에서 실제로 사용하던 유럽식 의자와 탁자, 오얏꽃무늬가 수놓아진 황금병풍, 상들리에 등을 전시하여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천문과 과학 I > 전시실 전경



<천문과 과학 I > 전시실에서 내려다본 자격루 모습

자격루의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자격루 모형을 전시하여 체험학습을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

[특별전시]

▶ 조선의 어보



태조 가상시호 금보(太祖加上諡號金寶) | 조선(朝鮮), 1683년 | 금속에 도금 | 9.6×9.6×7.3cm | 3.5kg  
 숙종 9년(1683)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의 뜻을 더하여 정의광덕(正義光德)이란 시호를 가상하며 만든 금보이다.



태조 가상시호 옥책(太祖加上諡號玉冊) | 조선(朝鮮), 1683년 | 옥 | 각 25.3×21.7cm 10폭  
 태조 가상시호 금보를 만들면서 함께 제작한 옥책이다.





영조가 정조에게 내린 은인(正祖孝孫銀印) | 조선(朝鮮), 1776년 | 은 | 10.2×10.2×9.5cm | 5.8kg  
 왕세손이던 정조에게 내린 어보로 83세 영조의 친필을 새긴 것이다.  
 어필을 새긴 어보로 유일한 예이다.



유세손서(諭世孫書) | 조선(朝鮮), 1776년 | 종이에 먹 | 58.0×121.5cm  
 은인을 내릴 때 함께 내린 유서로 정조의 효성이 만세에 전하길 바라는 마음과 후계자에 대한 믿음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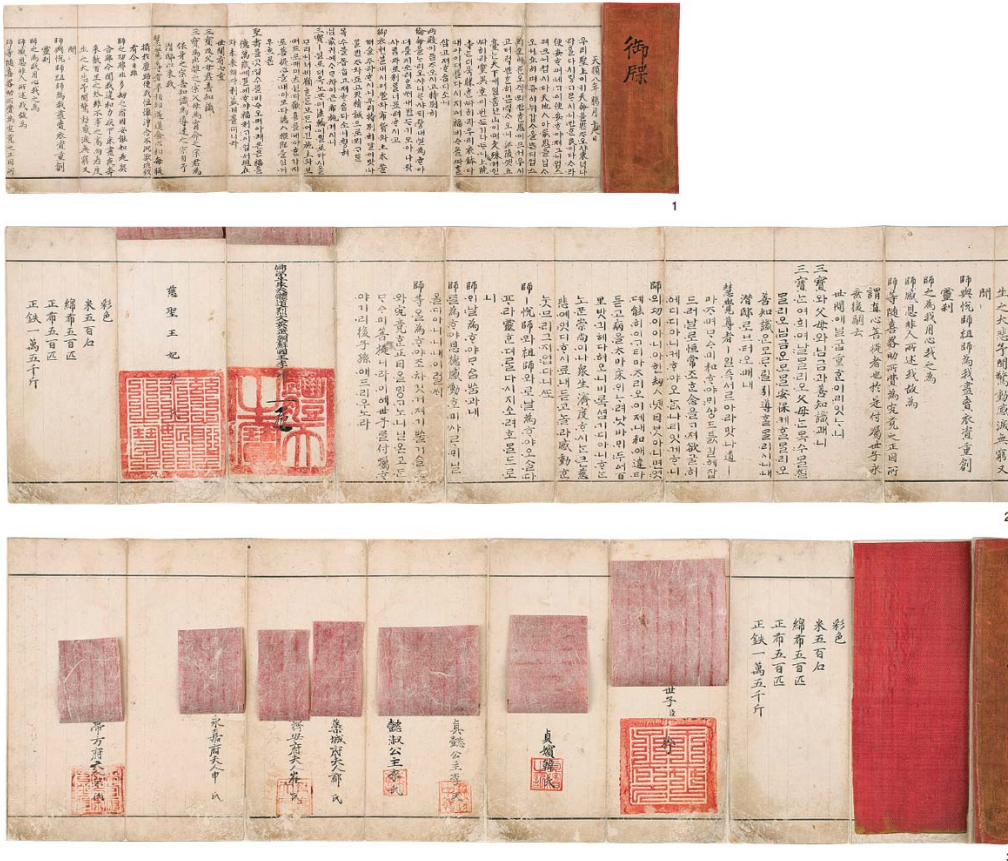


대한의원 개원 칙서

(大韓醫院開院勅書), 등록문화재제449호 | 대한제국大韓帝國,  
 1908년 | 43.0×59.5cm,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의학박물관)  
 1906년 통감부(統監府)가 의료기관인 광제원(廣濟院), 의학교(醫學校),  
 한국적십자병원을 병합하여 1908년 대한의원으로 개원하면서 대한제국의 공식  
 의료기관임을 선포한 문서이다. 황제의 명령인 조칙(詔勅)에 사용한  
 칙명지보(勅命之寶)가 날인되어 있다.



칙명지보(勅命之寶), 대한제국(大韓帝國), 897년 | 9.2  
 ×9.2cm | 국립중앙박물관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제작한 국새  
 가운데 황제의 명령인 조칙(詔勅)에 사용한  
 인장이다. 황제국을 상징하여 용 모양 손잡이를  
 달았고 천은天銀에 도금하였다.



상원사를 중창하면서 지은 권선문(平昌上院寺重創勸善文)  
 국보 제292호 | 조선(朝鮮), 1464년 | 32.5×12.0cm | 월정사

성보박물관세조 10년(1464)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信眉) 등이 왕의 만수무강을 빌고자 상원사를 중창하면서 지은 글과 이 소식을 듣고 세조가 물품을 하사한다는 글이다. 세조의 체천지보(體天之寶, 1458년)와 정희왕후의 자성 왕비지보(慈聖王妃之寶, 1457년) 등이 찍혀 있다. 이 가운데 정희왕후의 존호 어보가 현존한다.

세조비 정희왕후 존호 옥보(世祖妃貞熹王后尊號玉寶),  
 조선朝鮮, 1457년, 옥 | 10.1×10.0×7.6cm | 2.2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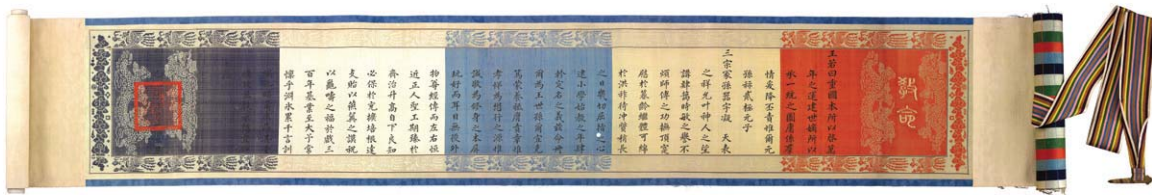
세조 3년(1457) 사육신(死六臣)의 단종 복위 운동을 진압한 후,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조께 존호를 올리면서 왕후께도 함께 바친 어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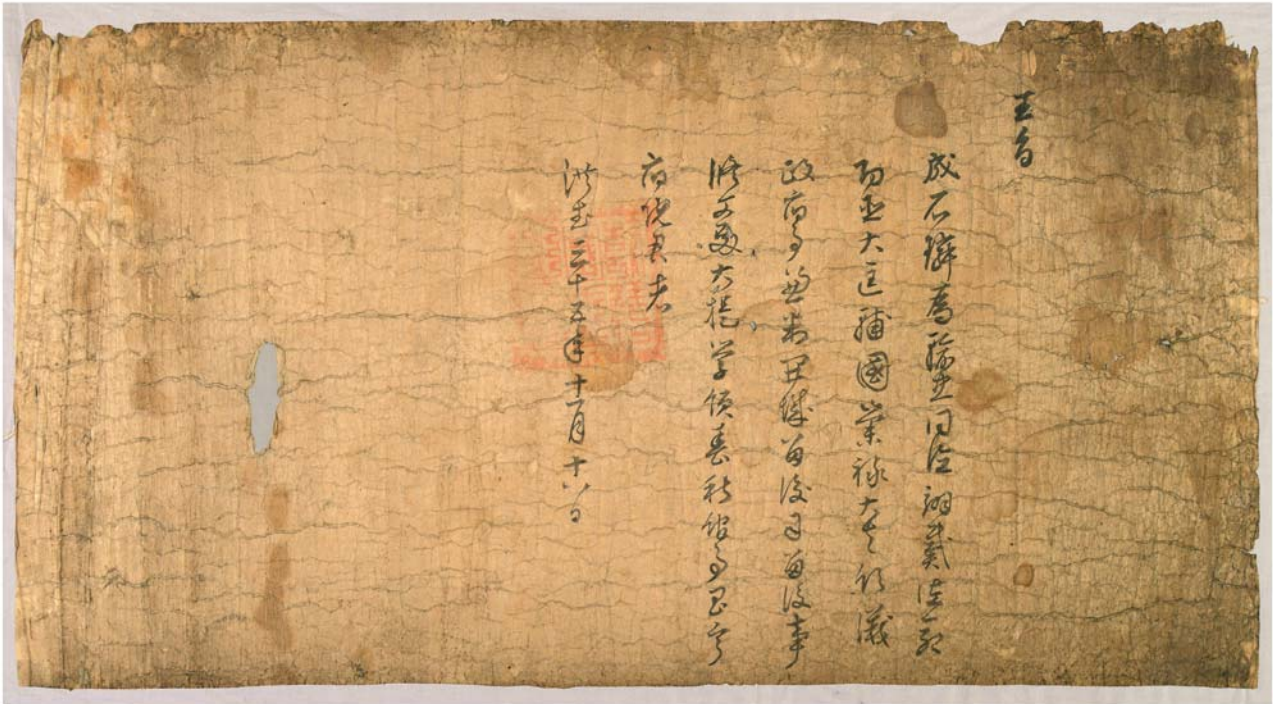
## ▶ 어보와 국가의례



정조 왕세손 책봉 옥인(正祖王世孫冊封玉印) | 조선(朝鮮), 1759년 | 옥 | 9.9×9.8×10.0cm | 2.0kg  
영조 35년(1759)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하면서 만든 옥인이다.



정조 왕세손 책봉 교명(正祖王世孫冊封敕命) | 조선(朝鮮), 1759년 | 비단에 먹 | 35.0×304.0cm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하면서 옥인과 함께 내린 교명이다.



성석린 고신 왕지(成石璘告身王旨)

보물 제746호 | 조선(朝鮮), 1402년 | 32.0cm×61.1cm | 개인 소장  
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한 공로로 성석린을 영의정부사겸판개성유후사사(領議政府使兼判開城留後司事)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중국으로부터 받은 국새,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그림 29

이징석 왕지(李澄石王旨),보물 제1001호 | 조선(朝鮮),  
1433년 | 45.6×63.0cm | 개인 소장  
세종 15년(1433) 무신 이징석을

가정대부동지중추원사(嘉靖大夫同知中樞院事)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책봉과 관리 임명에 사용하는 국왕행보(國王行寶)가  
날인되어 있다.

## ▶ 어보 제작과 봉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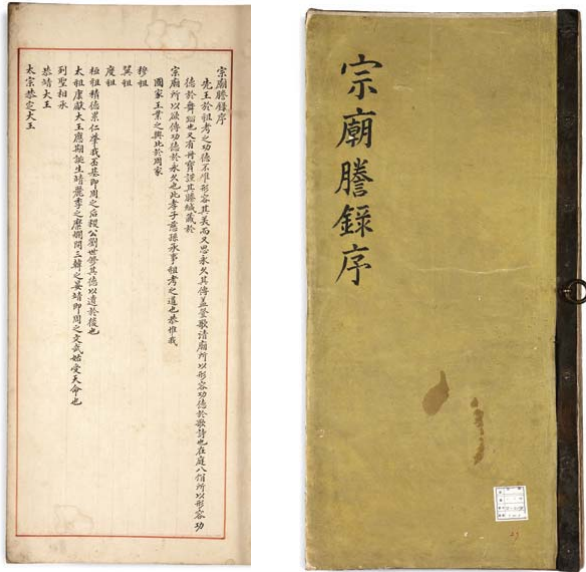
봉과(封裹) 관련 물품 : 진종 추존 은인(眞宗追尊銀印)의 인록 · 보자기 · 결영자 · 자물쇠 · 열쇠 · 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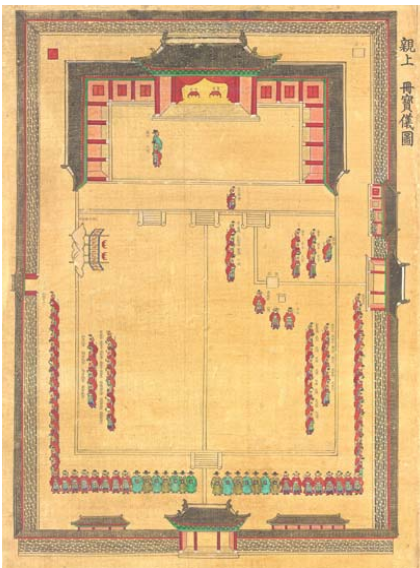
호갑護匣 | 조선 후기朝鮮後期 | 가죽 | 최대 높이 27.6×최대 길이 300.4cm

어보를 담는 맨 길 상자로 어보와 인주(印朱)를 담은 보록, 주록(朱蠶)을 한 쌍으로 보관하도록 두 개의 상자를 연결하여 제작하였다.

### ▶ 어보의 봉안



종묘등록서宗廟謄錄序 | 조선朝鮮 | 종이에 먹 | 85.0×42.0cm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종묘등록서에는 각 왕대별로 종묘 각실에 소장되었던 왕과 왕비의 교명, 옥책, 금보, 국조보감 등의 연대, 수량 등이 기록되어 있다.



종묘의레그림병풍(宗廟親祭規制圖說屏風) | 조선(朝鮮), 고종(高宗) 연간 | 각 141×48.8cm 8폭  
 종묘대제 등 종묘에서 치러지는 각종 의례를 그림과 함께 설명한 병풍이다. 8폭에 왕이 직접 어보와 어책을 올리는 의식인 친상책보의(親上冊寶儀)가 표현되어 있다.